

□ 주요현황

- 경남 단감은 전국 재배면적의 57% 차지, 세계 1위 생산지이나 최근 생산량 감소와 소비부진 등으로 단감산업 위기에 직면
 - 생산량은 2010년 181천톤에서 2019년 96천톤으로 67% 감소
 - 소비량은 2010년 3.5kg/인에서 2019년 1.9kg/인으로 66% 감소
 - 일본 품종이 99% 점유, 특히 만생종 품종 80%로 수확기에 서리피해 극심
- “위기 극복을 위한 국산품종 개발과 사업화로 단감 산업 활성화 시급”

□ 추진실적

- (일본품종 대체) 우리나라 재배환경에 맞는 국산품종 개발·보급
 - 우리 道 육성 품종 통상실시권 지속적 확대 ('19~'21) : 2품종, 34업체, 163ha
 - * 올누리, 감누리 : 경남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우리도 감 품종
 - 품종 다양화를 위해 시장성이 있는 신품종 개발 : 씨없는 썬스위트 등 3종
 - 품종갱신 비용경감을 위한 신품종 보급체계 전환 : 농협 34개소 MOU 확대
 - 지역 적응성 검토를 위한 현장실증연구 추진 : 도내 15개소
- (수출확대) 신선도유지제 특허 기술이전을 통한 단감 수출경쟁력 강화
 - 1-MCP 특허 산업체 기술이전 : 유엔에코사이언스, 2,000g, 6년간
 - * 기존 1-MCP는 기술료 400만원/1g, 본기술은 1/100 수준으로 비용절감
 - 수출 단감의 유통 중 조기연화 문제해결로 수출 확대에 기여
 - * 베트남 수출 현장기술지원 : (기존) 2개월 → 4개월, 유통기간 2배 향상
- (코로나시대 소통강화) 비대면 기술컨설팅 활성화 및 지역상생 협력
 - 밴드 「단감기술공감」, 「올누리」 활용, 비대면 실시간 영농상담, 기술정보공유
 - 지역재활요양기관(김해보훈요양원)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
 - 지방 최초 자랑스러운 농촌진흥인상 수상 : 단감가공품 개발(박여옥 연구사)
 - 학업, 육아까지 병행한 여성 농학박사 2명 배출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

□ 주요 성과(결과)

○ 추석용 단감 「올누리」 보급으로 노동력 분산과 농가소득 증대

- * 올누리 : 9월 24일 수확, 부유 대비 수확기 25일 단축
-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확대 : 92ha, 24업체, 28천주, 경남 우선 보급
- 새로운 신품종 보급방식 시도 : (기존) 묘목업체 → 농업기술원-농협 협력
- 소득증대 : (기존) 「부유」 18백만원/ha → 「올누리」 61백만원/ha (236% ↑)
- 유통기간 : (기존) 「부유」 21일 → 「올누리」 47일 (25일 연장)

⇒ 국산 신품종 보급 : '20) 1% 미만 → '30) 10% 이상 점유 기대
⇒ 노동력 분산, 조기출하로 가격경쟁력 증가 : 50만원/10a, 432억원/년

○ 가공용 뽕은감 「감누리」 개발·보급으로 영농 피해(낙과) 경감

-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확대 : 71ha, 10업체, 21.5천주
- 낙과율 : (기존) 대봉감 80 → 감누리 20% (감 60%)

○ 신선도유지제(1-MCP) 합성기술 사업화로 연 100억원 소득증대

- 기술이전('21) : 유엔에코사이언스(주), 2,000g, 21년 1월 ~ 26년 12월
- 기대효과 : 농산물 경쟁력 강화로 수출확대, 기술료 절감 100억/년
- * 우리 도에서 개발한 1-MCP('19, 특허 제2029913호)는 신선도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, 기존 제품에 비해 저렴하고, 액상 제형으로 사용이 편리함

○ SNS 「단감기술공감」, 「올누리」등 비대면 기술컨설팅 밴드 운영으로 실시간 영농상담 70여건, 기술정보 80건 제공, 현장애로 해결

- * 「단감기술공감」 : 회원 935명, '18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최우수 밴드 선정

○ 지역재활요양기관 업무협력으로 지역상생 선도

- 다양한 단감나무를 요양원에 식재 및 지속적 기술지원으로 지역 재활요양기관으로부터 감사장(21. 4. 9.) 수령

□ 미흡한 점 및 대책

○ 우리 도에서 개발 된 우수한 품종의 우량 종묘의 영농현장 보급을 통한 일본품종 중심의 단감 품종의 국산화 시급

⇒ '21 하반기 농림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를 통한 보급 강화

○ 농가보급형 신선도유지제(1-MCP) 대량생산을 통한 산업화 촉진 필요

⇒ 산·학·관·연 협업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으로 산업화 확대